다시 푸는 경서

虛雲和尚의 참선요지 ㉔

到那時架子也不擺了 威風也不逞了
도나시가자야불파료 위풍야불령료
路也跑得了 肚子也餓得了 菜根也喫
로야궤득료 두자야아득료 채근야끽
得了
득료
爲甚麼他這樣放得下
위심마타저양방득하
因爲聯軍根要他的命他一心想逃命呀
인위연군상요타적명타일심상도명아
可是後來諸位和 御駕回京
가시후래의호화 어가회경

그러나 이때에 이르러 가마도 꾸리지 못하고 위풍도 드날리지 못하고
길을 걸어야 했으며 배는 곯아야 했고 풀뿌리라도 먹어야 했으니
어찌 저런 모양이 되고 말았던가.
연합군이 황제의 목숨을 빼앗으려 하는줄 알고 일심으로 도망칠 생각만 하지 않았던가.
그후 강화가 이루어져 어가는 다시 북경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架子又擺起來了 威風又逞起來了
가자우파기대료 위풍우령기래료
路又跑不得了 肚子餓不得了
로우궤부득료 두자아부득료
稍不高興的東西 也喫不下咽了
초불고흥적동서 야끽불하인료
爲甚他那時又放不下了
위심마타나시우방불하료
因爲聯軍已不要他的命 他已沒有逃命
인위연군이불요타적명 타이몰유도명
的心呀
적심아

가마도 잘 꾸리게 되었고 위풍도 떨치게 되었고
길을 걷지 않아도 되고 배를 곯치도 않게 되었다.
그러자 차차 맛없는 음식은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게 되니
어째서 이때에는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연합군이 그의 목숨을 이미 노리지 않게 되니 황제는 이미 도망칠 마음이 없어졌기 때문이 아닌가.

假使他時常將逃命時的心腸來聯道 還
가사타시상장도명시적심장래관도 환
有甚麼不了
유심마불료
可惜沒個長遠心 遇着順境 故態復萌
가석몰개장원심 우착순경 고태부맹

諸位同參呀 無常殺鬼 正時刻要我們
제위동참아 무상살귀 정시각요아문
的命
적명
他永不肯同我們「議·和」的呀
타영불긍동아문 의 화 적아
快發箇長遠心 來了生脫死吧
쾌발개장원절심 래료생탈사읍

가령 황제가 늘 도망칠 때의 심정으로 일을 처리한다면 어떤 일인들 못해내랴.
그러나 애석하게도 장원심이 없었기에 순경계를 만나자 옛날 태도가 다시 싹트게 되었다.
그대들은 내 말에 동조하는가. 무상이라는 살귀가 바로 이 시각에 우리들의 목숨을 노리고 있고
그 살귀들은 영원히 우리들과 강화할 뜻이 없음이라.
흔쾌히 장원심을 내고 간절한 마음 일으켜 생사해탈을 마쳐야 하느니라.

高峯妙祖說 參禪若要剋日成功
고봉묘조설 참선약요극일성공
如墮千丈井底相似 從朝至暮 從暮至朝
여타천장정저상사 종조지모 종모지조

"천길 우물바닥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듯 참선함에 끝내 딴 생각이 없어야 한다"

千思想 萬思想 單單是箇求出之心
천사상 만사상 단단시개구출지심
究竟決無二念
구경결무이념
誠能如是施功 或三日 或五日 或七日
성능여시시공 혹삼일 혹오일 혹칠일
若不徹去
약불철거
高奉今日犯大妄語 永墮拔舌泥犁
고봉금일범대망어 영타발설니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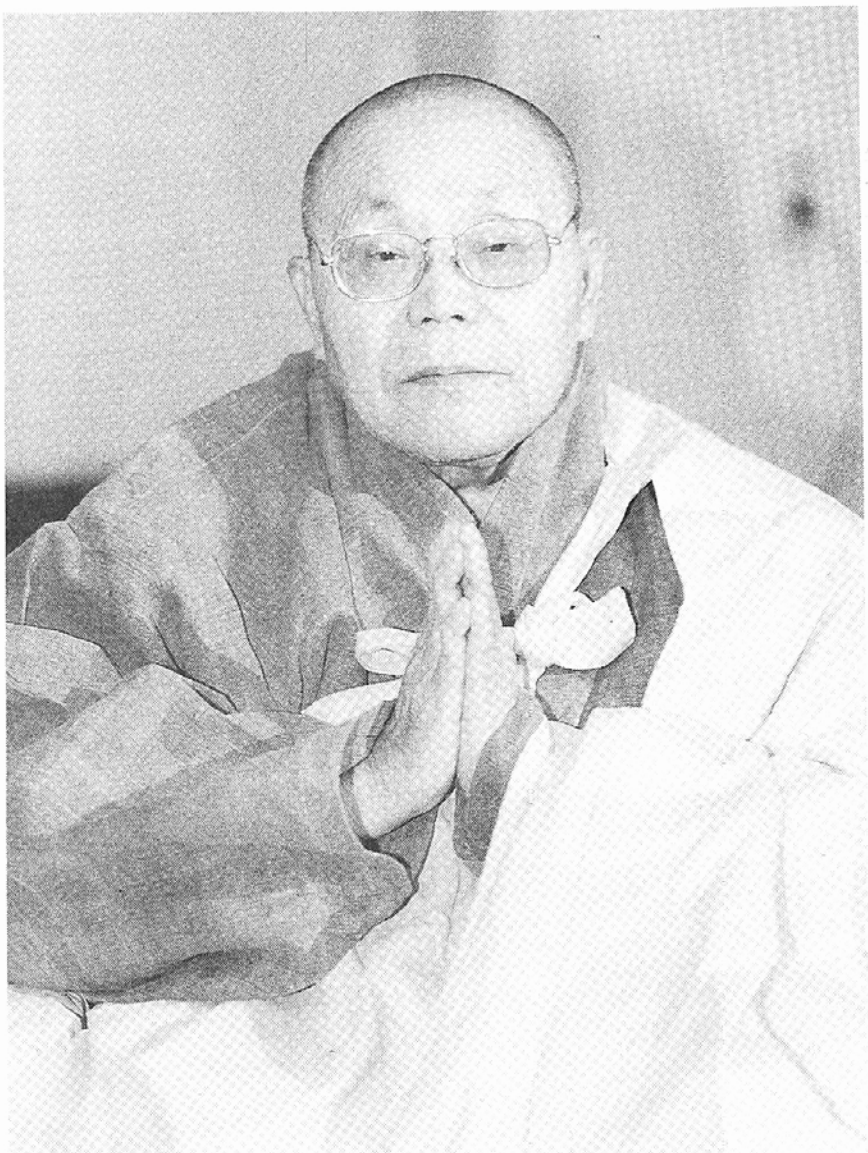
고봉원묘선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참선을 함에 있어 날짜를 새겨 공을 이루고자 한다면
마치 천길 우물 바닥에 떨어진 것과 같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시 저녁에서 아침까지 천가지 만가지 생각마다 오로지 우물에서 벗어나겠다는 마음이어야 하며
끝내도록에 결코 딴 생각이 없어야한다 하셨다.
선사께서는 지성으로 이와같이 공을 들이고도 혹은 삼일, 오일, 칠일에도 만약 사무치지 않는다면 고봉은 오늘 큰 망언을 한 것이니 영원히 혀를 뽑아 발갈이하는 지옥에 떨어지리라 하셨다.

龍眼

지상법석

"지금 이순간 이자리

묘련스님 〈묘현사 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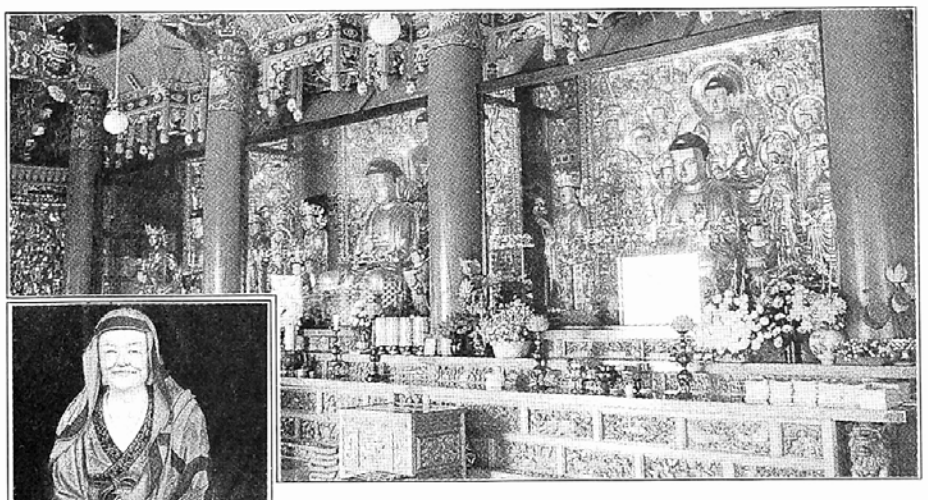
약력
- 1924년 전남 장성 生
- 1946년 서울 안양암에서 출가후 해인사서 효봉스님 문하에서 공부
- 강원선방을 다니며 납자의 길을 걷다가 묘현사 창건
- 1일1식을 철저히 지키며 출가후 한번도 양말을 안 신는 고행으로 일관해 오며 〈법화경〉 공부에 매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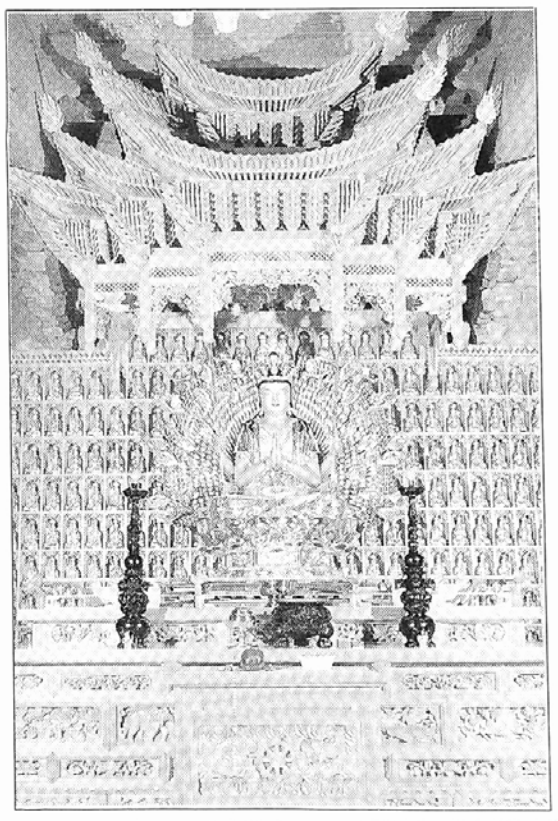
오늘은 수자영가(낙태영가)를 천도하는 법회이니 여기에 맞는 이야기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들 인간은 금생에만 사는게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열반락(涅槃樂)을 얻으시고, 해탈열반을 하셨기에 불생불멸의 대원각심인 법신(法身)을 얻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생들은 수천억만년을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수억만년을 영원히 살아가게 됩니다. 해탈하기 전에는 윤회보(輪廻報)를 면치 못하는 것이지요.
그럼 왜 윤회보를 면치 못하느냐. 그것은 무명(無明)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때문에 그 무명에 얽혀 있는가. 그 이유는 일종의 집착이예요.
말하자면 사방이 어두컴컴하면 아무것도 분별할 능력이 없는 것처럼, 세속적인 여러가지 지식이 높거나 심리학을 전공하였다거나 또 대학자가 된 사람들 조차도 무명의 업장(業障)을 소멸할 능력이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우리가 아는 체를 하지만 세속적인 지식으로는 무명의 업장을 소멸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윤회보를 받게 되느냐하면 그것은 집착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 얽히고 저기 얽히고 하면서 집착하고

"우리가 아는체 하지만 세속적인 지식으로는 업장 소멸할 수 없어요 오직 부처님 가르침따라 행할때 가능합니다"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사람만 그러하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컨데 모든 짐승들, 날아다니는 새와 기어다니는 짐승들, 그리고 어류들도 다 자기들 세계가 있습니다. 이 방안만 하더라도 무수억의 세계가 있습니다. 〈화엄경〉에 일미진중 함시방(一微塵中 咸十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티끌하나 가운데도 동서남북이 있고 온세계가 다 들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천상계(天上界)에도 무수억의 세계가 있습니다. 대범천왕과 제석천왕을 비롯하여 하느님도 수억만명이 있어요. 우리 범부들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어렵게 생각할 것도 아니예요.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얼마나 분별심(分別心)을 일으키고, 얼마나 시시각각으로 윤회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무수억천만번의 윤회보를 받고 있습니다. 마음이라는 것, 생멸업(生滅業)이라는 것은 상상조차 못하는 것이예요.
그리고 물질로 이루어진 우리 이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지금 윤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안으로는 그러려니 하고 윤회보를 안 받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시야가 좁고 얕기 때문에 그래요. 눈을 크게 뜨고 시야를 넓혀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70이 넘은 이 사람이 몸은 비록 늙었지만 마음은 20대 어린애 같아요. 늙으면 어린애 마음이 된다더니 그렇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것이 윤회보인 것이예요.
이 법문은 삼천대천 세계에 있는 모든 수자영가들이 다 듣고 있습니다. 법문할 때 떠들거나 소란스러우면 영가들이 신경질 내게 되고 그러면 제도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수자영가 천도를 위해 참석하신 불자님들께서는 조용히 참회하십시오. 이 수자영가들도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행복을 누리고 살았어야 할 터인데, 이 식신이 무엇때문에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게 다 욕망 때문입니다. 이 영혼들이 잘못된 욕망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그런 아버지 어머니에게 가서 의탁하게 되었는가 하면 다 그 업보 때문이예요.
살생을 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세에 그 영혼들도 그와 같은 살생을 했기 때문이라고 부처님께서 〈인과경(因果經)〉에 말씀해 놓았습니다. 〈아함경(阿含經)〉에도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대목도 나옵니다. 열애에 빠진 어떤 젊은 남녀가 부모의 반대로 임신한 애를 낳을 수도 키울 수도 없는 궁지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냥 어린애를 낳았다가는 사회적 지위와 재산까지 모두 잃게 될 판이라, 부모의 말을 따라 어느 의사에게 가서 낙태를 시켰습니다. 이러한 과보로 인해 자기도 수자령이 되는 과보를 받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과를 모르는 무지로 해서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인과 관계를 알았다면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런 과보를 받지 않았을 것이며 그런 죄악을 저지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낙태가 문제가 아니예요. 그 영혼이 무량무변(無量無邊)의 고통을 받는다고 하니, 이게 문제입니다.

불사의 현장에서 함께 일하겠습니다





- 부처님 조성, 천불조성, 목탱화, 개금불사, 천불감실
- 내부장엄불사(수미단, 신중단, 영단, 닫집…) 등등
- 불교 목공예품~ 법상, 경탁, 경상, 불전함, 목어, 호신인등, 연설대, 등등 목공예품 일체

불사의 전당 불교조각원 서울 종로구 견지동 81번지 2층 (조계사 건너편)
■사 무 실 (02) 738-8447~8
■공 장 (051) 804-8907
■부산사무실 (051) 556-0541~3
대표 이 진 형 합장